

중남미, 대선 및 총선 정국 돌입

1. 중남미 대선 및 총선 실시

□ 2012년 중남미 국가 중 5개국, 대선 및 총선 실시 예정

- 2012년도 대선 및 의회선거에 따라 기존의 정치·경제 개혁 추진이 무산되고, 선거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 또는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음.
- 마약 거래조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 및 IMF 요구에 따라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, 대선 이후 기존 정책들이 유지될 것이 불투명함.
- 특히,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당 및 시민사회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, 선심성 경제정책을 통해 정권 유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.
- 전반적으로 중남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나, 대선 승리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 및 대선 이후의 급격한 정치체제 변화는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어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화유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.

<표> 2012년 중남미 선거 일정

연 도	국 가	대통령 선거	의회 선거
2 0 1 2	도 미 니 카 공 화 국	5월 12일	-
	멕 시 코	7월 1일	7월 1일
	푸 에 르 토 리 코	11월 12일	11월 12일
	베 네 수 엘 라	12월 12일	-
	엘 살 바 도 르	-	3월 12일

자료: EIU.

## 2. 주요국 대선 전망

### □ 도미니카 (공), 야당인 도미니카혁명당(PRD) 후보 지지율 선두 유지

○ 야당인 도미니카혁명당(PRD) 메히아 후보가 집권당 도미니카해방당(PLD) 메디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음.

- 갤럽(Gallup) 조사에 따르면, 메히아 후보의 지지도(8월 47.9%, 11월 47.9%)가 메디나 후보의 지지도(8월 33.4%, 11월 42.6%)보다 높음.

- 최근 도미니카 정부의 낮은 재정건전성, 범죄율 증가 및 원자재, 생필품 가격 상승, IMF의 요구에 따라 실시 중인 전력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철폐 등으로 현 정부 및 도미니카해방당(PLD)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.

○ 사회 문제 해결 여부 및 긴축정책에 대한 여론이 대선 정국 향방을 결정

- 현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비용 상승, 마약 밀거래 및 관련 범죄 증가 등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

- 다만 여당인 도미니카해방당(PLD)이 2016년까지 의회를 2/3정도 차지하고 있어,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현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.

### □ 멕시코, 야당 단독 후보로 페냐 니에토(Pena Nieto) 선출

○ 지난해 11월 27일, 야당인 제도혁명당(PRI) 단독 후보로 선출된 페냐 니에토(Pena Nieto)는 현재 44%의 지지율로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음.

- 제도혁명당(PRI)은 2000년까지 70 여년간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정당으로, 마약 조직간의 무력충돌에 따른 인명피해 및 저조한 경제 실적을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음.

-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행동당(PAN)의 대선 후보 바스케스 모타(Vazquez Mota)는 22%의 지지율을 얻는데 불과하여 PRI의 정권 탈환 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
○ 7월 대선까지는 노동, 치안, 세금 등 정치 및 경제 관련 개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차기 정권에서도 마약 범죄 소탕 및 치안 유지는 주요 의제가 될 것임.

- 현재 국민행동당(PAN) 주도로 경제 개혁 및 치안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, 제도혁명당(PRI)의 정권 재탈환이 이루어지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음.

- 다만, 마약 조직 소탕은 차기 정부에도 중요한 정책 의제이지만, 제도혁명당(PRI) 역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.

## □ 베네수엘라, 차베스(Chavez) 건강 악화 불구, 대권 장악 가능성 대두

○ 현 대통령인 차베스는 암 투병 이후 건강 회복 단계에 있으며 3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

- 이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강화하였고,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지지율 상승에 힘을 쏟고 있음.

- 현재 차베스는 개인의 건강 악화, 야권연합(MUD)의 대정부 비판,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높은 범죄율로 3선이 불투명한 상황임.

○ 심각한 건강 문제만 발생되지 않는다면, 차베스의 3선 가능성이 유력

- 차베스 정부가 야권 연합(MUD)의 정치 활동을 사법부 및 언론기관을 통하여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,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.

- 또한 권한이 크게 집중된 차베스 정부 하에서 시민 사회 및 학생들에 의한 대정부 비판이 대두될 상황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차베스의 3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방인식(☎02-3779-5720)

E-mail : [isbang@koreaexim.go.kr](mailto:isbang@koreaexim.go.kr)